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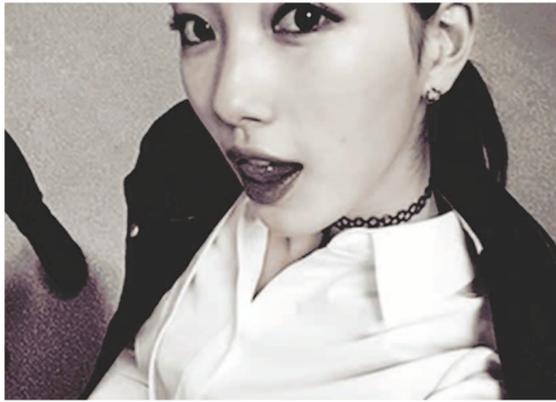


스타들의 놀이터
인스타그램 해부

Instagram '인스타그램'이라 쓰고, '인(人)스타(Star)'라 읽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좋아하는 것은 뭘까?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적 시선을 모으는 스타들의 관심사를 한 눈에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이용하는 스타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그 안에 작은 놀이문화가 생겨났다. 과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해온 방식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담아 '나만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스타들의 개성만큼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유형도 다양하다. '셀카족' '패션족' '미식가' '일상족' 등 다양한 모습을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들여다보자. 이영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얼짱 각도와 감정 표현은 이렇게 여자 스타들 셀카의 정석 선보여
패션스타들의 잇 아이템 찰칵 일상 소식들도 실시간 업데이트

스타들의 민낯을 엿보고, 최신 트렌드도 따라잡고



#셀스타그램 #얼스타그램

자신의 얼굴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들도 있다. 미스 에이 수지, 카라 구하라, 포미닛 현아(왼쪽 위부터 시계반대방향) 등 걸그룹 멤버들이 주로 이용한다.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나 민낯 등을 가리지 않고 셀카를 찍어 사진을 올린다. 일명 '얼짱' 각도와 남이 찌어주는 듯한 자연스러운 각도는 기본이고 얼굴, 상반신, 거울을 이용한 '전체 샷' 등 포즈도 다양하다. 희로애라의 솔직한 감정 표현도 눈길을 끌지만, 셀카에 자신 없는 팬들이 참고서로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먹스타그램 #맛스타그램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팬들의 시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다. 다비치의 강민경(왼쪽 사진)과 연기자 박수진(오른쪽 사진), 야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은 동료 연예인들이 지인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는 음식을 시시콜콜 '인증샷'으로 남긴다.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고도 어떻게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이를 보는 팬들만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진다.



#애스타그램 #알스타그램

톱스타가 부럽지 않다. 팔로어도 수만 명인 한류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시청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추성훈의 딸 사랑양(오른쪽 사진)과 송일국의 세 쌍둥이 대한·민국·만세,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했지만 여전히 인기를 받고 있는 타블로와 강혜정의 딸 하루양(왼쪽 사진)은 '애스타'다. 사랑양과 하루양은 각각 엄마 야노시호와 아빠 타블로가 직접 사진을 공개하고, '삼둥이'의 공간에선 한 열렬 팬이 문을 열어 방송 사진을 올린다.



#멋스타그램 #웃스타그램

멋을 아는 스타들이 모였다. 아이돌 스타로는 드물게 각종 해외 패션쇼를 섭렵하고 다니는 빅뱅 지드래곤(왼쪽 사진)이 단연 눈에 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TOP 100 인스타그램매'에 이름을 처음 올리며 국내 가장 많은 팔로어(3800만명)를 자랑한다. 그의 웃이나 운동화 등 소품은 누구나 사고 싶은 '잇 아이템'으로 꼽힌다. 소녀시대 수영도 패션스타답게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닌 일상에서 편하게 입는 옷으로 눈길을 모은다. 가수 아이비(오른쪽 사진)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컬러, 액세서리, 화장품 등 정보를 공유한다.



#일상스타그램 #잡스타그램

백화점과 같다. 하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고, 느끼고, 먹고, 일하는 일상의 모든 것을 남긴다. 소녀시대 태연은 지드래곤에 이어 가장 활발히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스타이면서 자신의 생각과 관심을 담는다. 가수 보아(왼쪽 사진)는 평범한 권모아로 여행하고,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밥을 먹는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을 공개한다.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까지 인맥을 엮을 수 있는 기회다. 엑소의 천영(오른쪽 사진)은 다른 멤버들을 대표해 그룹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무대 뒤 모습 등을 공개한다.

●인스타그램은?

온라인 사진(영상) 공유 서비스. "세상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며 2010년 미국의 대학 동창인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가 개발했다. 2014년 12월 현재 월간 이용자만 3억명을 돌파, 4년 만에 트위터를 넘어섰다. 사진을 찍는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필터를 활용, 일명 '보상' 효과를 낼 수 있다. '#', 일명 '해시태그'를 붙여 올린 모든 이용자들의 사진은 관련어로 묶여 검색이 가능해진다.

편집 | 고정필 기자 ko@donga.com 트위터@mkh2357



이유영 "보는 사람 누구나 기분 좋아지는 연기 할래요"

■올해 주목할 만한 신인 여배우 이유영

작년 밀라노영화제 여우주연상 깜짝 수상 "암으로 돌아가신 아빠가 주신 상이라 생각" 올해 영화 '그놈이다' '간신' 잇따라 선배

이유영(26)은 이름도, 얼굴도 아직 낯선 연기자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하는 연예인이 흔한 요즘, 이유영은 오로지 실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를 먼저 알아본 곳은 해외의 유수 영화제였다. 지난해 데뷔작 '봄'으로 제 14회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무명의 신인이 국제무대에서 먼저 존재를 인정받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상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3월부터 영화 '그놈이다' 촬영을 시작하는 이유영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영화 '간신'으로 관객과 만난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 것 같은 불안함에 연기에 도전했다"는 그가 예상보다 일찍 주목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이유영은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입학했다. 예술고에 다니거나 일찍부터 실기 학원에 등록해 몇 년씩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연기 지망생'이 많지만, 이유영은 고교 졸업 뒤 대학보다 세상이 더 궁금해 헤어디자이너로 먼저 나섰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근처 한 헤어숍에서 일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 2년이 흐르니 남은 인생도 지루할 것 같았다. 부모님도 한 번쯤 '우리 딸 좋은 대학 다니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연기를 전공으로 택한 과정은 자연스러웠다. "실기로 대학에 갈 방법"을 찾다 연기학원에 등록했고,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 한예종에 합격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연기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면 동료가 최근 드라마 '미생'으로 주목 받은 연기자 변요한이기도 하다.

이유영은 스스로 "승부욕이 강한 성격"이라고 했다. "연기를 시작했으니 승부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크다. 헤어숍에서 먼저 사회를 경험하고 '필요'에 의해 대학에 도전한 건 남의 시

선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승부욕과 가치관으로 가능했다.

"대학에 가서 친구들이 만드는 단편영화에 출연했다. 그러다 조근현 감독님의 '봄' 시나리오를 우연히 봤다. 무조건 하고 싶었다. 쫓겼다."

원하는 일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간 끝에 영화제 여우주연상의 행운도 따랐다. 그리고 1월 한 국영화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영화상' 신인상의 영광도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수상은 실력이나 운이 아닌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셨다. 지난해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며칠 뒤 상을 받았다. 아빠가 하늘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다. 아빠가 존상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두 편의 영화를 내놓는 이유영은 "내 연기를 보는 사람 누구나 기분 좋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도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는 "해피 바이러스를 주위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웃었다.

이혜리 기자 g01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y